

지역아동센터 만족도가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긍정적 자아관, 일상적 스트레스의 매개적 역할을 중심으로*

유설희** · 노지운***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의 지역아동센터 만족도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긍정적 자아관 및 일상적 스트레스를 통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 2기 중 제3차(2016년)에 조사된 자료를 활용하여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초등학교 6학년 아동 662명(남아: 325명, 여아: 337명)을 대상으로 측정된 지역아동센터 만족도와 긍정적 자아관, 일상적 스트레스, 주관적 안녕감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자료는 AMO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역아동센터 만족도는 주관적 안녕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지역아동센터에 만족도가 높을수록 주관적 안녕감을 높게 지각하였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만족도는 긍정적 자아관 및 일상적 스트레스를 통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쳤다. 즉, 지역아동센터 만족도가 높을수록 자아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되고, 스트레스 수준은 낮았으며 주관적 안녕감이 높아졌다. 본 연구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지역아동센터 만족도와 긍정적 자아관, 일상적 스트레스를 동시에 고려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본 연구결과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지역아동센터, 긍정적 자아관, 일상적 스트레스, 주관적 안녕감

* 이 논문은 보건복지부와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에서 진행된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2018년도 연구 공모전에 제출한 내용을 수정·보완하였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자립·역량연구실 전문연구원

*** 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과 박사수료, 교신저자, jeeunee@naver.com

I. 서 론

오늘날 우리 사회는 물질적 풍요와 심리적 빈곤의 양면성에서 갈등을 겪고 있다. 즉, 급격한 사회·경제적 발전이 이루어짐에 따라 과거 사회보다 물질적인 풍족함을 누리고 있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삶에 대한 만족감이나 행복 측면에서는 결핍을 경험하고 있다. 이에 진정한 행복의 의미에 대한 관심이 사회적으로 대두되면서 행복과 관련된 연구도 주목을 받고 있다. 행복에 대한 연구는 주관적 행복감, 삶의 질, 삶의 만족도 등 다양한 용어를 통해 연구되어 왔는데, Diener(1984)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끼는 정도에 따라 삶의 질이 결정됨을 강조하여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으로 표현하였다. 이러한 주관적 안녕감은 긍정적인 정서가 우세한 심리 상태를 의미하는 행복감과 같은 정서적 측면과 삶에 대한 만족과 같은 인지적 측면을 포괄하는 복합적인 요인으로 구성된다(Diener, Suh, Lucas & Smith, 1999).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연구는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되어 왔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과열된 교육열로 인해 이른 시기부터 지나친 경쟁심과 성취에 대한 압박감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면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를 방증하듯 우리나라 아동과 청소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가의 아이들보다 교육 참여나 학업 성취도는 매우 높았으나 주관적 행복 수준은 2009년 이래로 최하 위권에 머무르고 있다(염유식, 김경미, 2017). 특히,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점차 심화되는 가운데, 빈곤을 포함한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아동의 발달 및 삶의 질, 행복감 등에 부정적인 영향(구인회, 박현선, 정익중, 김광혁, 2009; 백혜영, 강현아, 2016; 유정원, 김형모, 2012)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특히, 저소득층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학문적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의 주관적 안녕감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1. 지역아동센터 만족도와 주관적 안녕감

지역아동센터는 1980년대에 빈곤 운동에 뿌리를 둔 공부방으로부터 시작되어 현재는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맞벌이 가정의 아동에게 보호(안전한 보호, 급식 등) 및 교

육(일상생활 지도, 학습 능력 제고 등), 정서적 지원(상담, 가족 지원), 문화서비스(체험활동, 공연 등)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동복지 실현의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0). 지역사회 내 지역아동센터가 가정의 돌봄 기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고려해볼 때, 지역아동센터의 서비스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은 아동의 행복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이 지역아동센터의 서비스가 자신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인식할수록 행복감이 높아졌으며(김현숙, 서윤, 2017; 문지혜, 2018), 초등학교 4~6학년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서원경, 2014).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이러한 연구결과가 일관적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중학교 1학년 청소년이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도움 정도를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한아름, 2017).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통해 지역아동센터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요인이 될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아동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한 사실 그 자체보다 서비스 이용에 만족한 경우에만 이용자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정익중, 김혜란, 홍순혜, 박은미, 허남순, 오정수, 2015), 지역아동센터 만족도를 통해 내부에서도 새로운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최윤정, 2000)는 점에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이 지역아동센터의 다양한 서비스 및 교사와 시설·환경 등에 대한 만족감을 평가하는 것은 이용 아동의 건강한 발달과 적응과 더불어 지역아동센터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의 지역아동센터 만족도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살펴보았다.

2. 지역아동센터 만족도, 긍정적 자아관 및 일상적 스트레스와 주관적 안녕감

1) 지역아동센터 만족도와 긍정적 자아관,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

지역아동센터와 같은 지역사회 내 지지 자원과 더불어, 주관적 안녕감에는 자아와 관련된 개인 내적인 요인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행복감에도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으로 보고되었다(곽수란, 2007; Huebner, 1991; McCullough, Huebner & Laughli, 2000; Terry & Huebner, 1995).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 자아관을 자신에 대하여 부정적 혹은 긍정적 평가로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자아존중감(Rosenberg, Schooler, Schoenbach & Rosenberg, 1995)과 스트레스 상황을 유연하게 잘 극복하고 자아통제를 조절하며, 세상에 대해 개방적이고 긍정적으로 참여하는 특성인 자아탄력성(황순택, 구형모, 김지혜, 2001; Block & Clock, 1980; Block & Kremen, 1996)으로 구성하여 살펴보았다. 많은 연구들에서는 자아존중감(배지아, 도현심, 박보경, 김민정, 2016; 유설희, 박보경, 도현심, 2015; 전혜진, 유미숙, 2015; 정규석, 박선희, 2010; 조소연, 2014)이나 자아탄력성(고영남, 2016; 성은모, 김균희, 2013; 임아영, 박미화, 2017; 정현정, 문혁준, 2011)이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히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초등학생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주관적 안녕감이 높았으며(정규석, 박선희, 2010), 학령 후기 아동(배지아 외, 2016; 유설희 외, 2015) 및 청소년(박재숙, 2010; 전혜진, 유미숙, 2015; 조소연, 2014; Cheng & Furnham, 2004; McCullough, Huebner & Laughli, 2000)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자아존중감과 주관적 안녕감 간에 정적인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또한, 초등학교 5~6학년 아동의 자아탄력성의 하위변인 중 부정적 감정의 인내와 긍정적 지지관계가 행복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정현정, 문혁준, 2011), 중학생 이상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고영남, 2016; 성은모, 김균희, 2013)에서도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이 주관적 안녕감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를 통해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은 자신을 긍정적으로 지각함으로써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을 촉진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 변인으로 지역아동센터 만족도와 자아존중감 및 자아탄력성 간에는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아동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것은 저소득층 아동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으며(이훈, 신혜중, 2008), 지역아동센터 서비스를 받고 도움이 되었다고 지각할수록 자아탄력성 높게 나타난 연구결과(정민희, 홍성원, 유서구, 2016; 황진구, 김희진, 2013)가 보고되었다. 즉, 가정에서 돌봄 공백을 경험한 아동이 가정의 역할을 보완하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자신의 욕구에 맞는 돌봄 서비스를 받는 것을 통해 가정에서 충족되지 못했던 자신에 대한 가치감을 느끼

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내적인 힘을 갖게 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지역아동센터의 만족도와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이 포함된 긍정적 자아관 간에는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해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지역아동센터 만족도와 긍정적 자아관, 주관적 안녕감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볼 때, 지역아동센터 만족도는 긍정적 자아관을 통해서도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과정-참여 모형(Process-Participation Model)에 의하면, 주관적 안녕감을 예측하는 데 있어 사회적 자원과 성격적 특성이 기여함을 강조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사회적 자원과 긍정적인 성격 특성을 가진 사람들은 삶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 주관적 안녕감이 높을 것으로 보았다(Cantor & Sanderson, 1999; Vacek, Coyle, Vera, 2010에서 재인용). 이에 따르면, 지역아동센터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은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적 자원이 될 수 있으며, 성격 변인들 중 자신의 개인적 특성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의미하는 자아존중감이 주관적 안녕감에 강력한 예측 변인이라는 점(Diener & Diener, 1995)을 감안할 때, 지역아동센터 만족도와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으로 구성된 긍정적 자아관은 주관적 안녕감을 예측하는 변인임을 짐작케 한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5학년 아동이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도움 정도를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았으며, 이는 높은 행복감으로 이어졌고(김현숙, 서윤, 2017), 초등학교 6학년 아동도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도움 정도 및 센터 내 교사 지지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또는 자아탄력성을 통해 행복감과 삶의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문지혜, 2018). 또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도움 정도를 높게 평가할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아졌으며, 이를 통해 삶의 만족도 또한 높아졌다(한아름, 2017).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기초로, 지역아동센터 만족도가 높은 아동은 자아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되고, 이는 자신의 주관적 안녕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2) 지역아동센터 만족도와 일상적 스트레스,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

한편, 학령 후기 아동은 청소년기에 진입하는 시기로 학업에 대한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동시에 부모의 기대와 경쟁에 대한 압박감을 느끼면서 부모 및 학업, 학교 생활, 또래관계 등에서 오는 갈등의 심화로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다(김연화, 2010; 채현이, 최미영, 2018). 특히, 아동이 일상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는 사소한 경험일지라도 동시다발적이고 연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삶의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는데, 이러한 스트레스가 아동이 스스로 지각하는 행복감을 저해한다는 연구결과들(김효진, 진미경, 2016; 노지운, 신나나, 2014; 박영아, 2011)이 보고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이 부모와 가정환경, 친구, 학업, 교사 및 학교생활 등에서 지각하는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주관적 안녕감은 낮아졌으며(김효진, 진미경, 2016), 초등학교 4, 6학년 아동 역시, 가정환경, 교사 및 학교 관련, 부모, 친구 관련 스트레스가 주관적 안녕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박영아, 2011). 한부모 가정에서 자란 중학교 3학년 청소년도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행복감은 낮아졌다(김현숙, 2016).

이와 더불어, 지역아동센터 만족도와 아동의 스트레스 간에 관련성도 보고되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의 물리적 공간이 통제성, 주체성, 안정성, 유희성 등의 환경심리적인 욕구를 충족하지 않으면 스트레스 상승, 수행저하 등 여러 가지 부정적인 심리요인이 상승된다고 밝혀져(강지선, 류호창, 2012), 아동을 둘러싼 물리적 환경과 심리적 적응이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의 레크레이션 활동에 참여한 아동 집단이 참여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스트레스가 낮아졌다는 연구결과(윤영미, 이완정, 2008)도 보고되고 있어 지역아동센터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이나 활동, 시설 등에 대한 만족도와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 간에 관련이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앞서 살펴본 지역아동센터 만족도와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토대로 하여, 지역아동센터 만족도가 일상적 스트레스에, 일상적 스트레스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에 근거할 때,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지역아동센터 만족도와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일상적 스트레스가 매개적 역할을 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3) 지역아동센터 만족도가 긍정적 자아관 및 일상적 스트레스를 통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역아동센터 만족도가 긍정적 자아관이나 일상적 스트레스를 통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고려한다면, 지역아동센터 만족도와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긍정적 자아관과 일상적 스트레스가

동시에 매개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긍정적 자아관과 일상적 스트레스 사이에서도 밀접한 관계가 보고되었는데, 학령 후기 아동의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부모나 학교, 친구 등과 관련된 스트레스는 적었으며(박영아, 2013; 임상희, 2005),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고 자기신뢰감이 높은 중학교 1학년생은 스트레스도 낮았다(김요셉, 김성천, 유서구, 2011). 즉, 자신에 대한 신뢰가 높고 긍정적인 자아관을 가진 아동은 자아가 잘 기능하고 있어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반면, 자신을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아동은 스트레스 자체가 증가할 것이며 그에 대한 대처도 취약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역아동센터 만족도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긍정적 자아관과 일상적 스트레스를 통해 주관적 안녕감에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리라 예측할 수 있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지역아동센터 만족도와 긍정적 자아관 및 일상적 스트레스가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탐색하였다. 즉, 지역아동센터 만족도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과 긍정적 자아관 및 일상적 스트레스를 통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한 연구문제와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그림 1 참조).

연구문제 1. 지역아동센터 만족도가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지역아동센터 만족도는 긍정적 자아관 및 일상적 스트레스를 통해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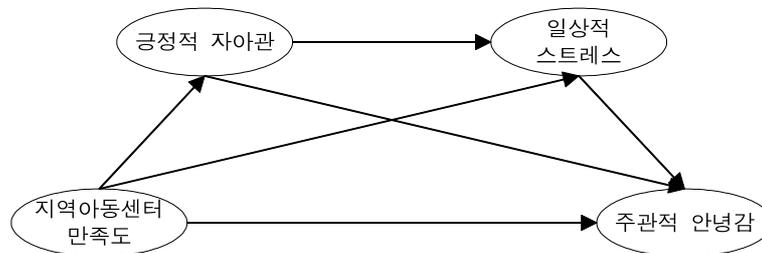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지역아동센터 만족도가 긍정적 자아관 및 일상적 스트레스를 통해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보건복지부와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의 위탁을 받아 한국 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조사를 수행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2기 중 제3차(2016년)에 조사된 초등학교 6학년 아동 662명이다.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는 2011년에 초등학교 4학년 표본을 선정하여 연구를 시작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에 대한 성장과 발달 등의 연구를 위해 종단자료를 구축하고 있다.

학령 후기 아동은 사춘기에 진입하면서 신체 및 심리적인 성숙이 이루어지고 사회적인 기대와 역할이 변화됨(Berk, 2007, 2009)에 따라 갈등과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다. 특히,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은 상위 교육기관인 중학교로 진학하게 되는 시점에 있어 학업이나 대인관계 적응 등의 영역에서 새로운 발달과업을 수행하도록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 및 발달적인 변화에 따라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이 경험하게 되는 혼란이나 갈등은 아동의 스트레스와 적응문제, 행복 등 전반적인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학년이 올라갈수록 국내 아동의 행복감 수준이 감소하며(김희중, 2007; 신명덕, 2007), 4학년에 비해 6학년 아동의 행복감이 낮아진 선행연구(조성연, 신혜영, 최미숙, 최혜영, 2009)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이 시기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아동의 성별은 남아가 49.1%(325명), 여아가 50.9%(337명)이었다. 가구형태를 살펴본 결과, 부모 모두와 함께 사는 아동은 64.5%(427명)로 가장 많았고, 부모 중 어머니와 함께 사는 아동이 17.2%(114명), 아버지와 함께 사는 아동이 13.3%(88명)이었으며, 부모님과 함께 살지 않고 조부모나 친인척 등과 함께 사는 아동은 5.0%(33명)였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이용기간의 경우, 3년 이상~5년 미만 이용한 아동이 42.4%(281명)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5년 이상~7년 미만이 31.0%(205명), 1년 이상~3년 이상이 23.0%(152명), 7년 이상이 2.3%(15명), 1년 미만은 1.4%(9명) 순으로 나타나 대다수의 아동들(75.7%)이 지역아동센터를 3년 이상 이용하고 있었다.

2.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조사도구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지역아동센터 만족도, 긍정적 자아관, 일상적 스트레스, 주관적 안녕감을 측정하는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아동에 의해 보고되었다.

1) 지역아동센터 만족도

아동의 지역아동센터 만족도는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 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진이 직접 개발한 지역아동센터 교사 만족도(5문항), 시설·환경 만족도(5문항), 전반적 만족도(3문항)를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각 하위요인의 문항을 살펴보면, 지역아동센터 교사 만족도는 ‘지역아동센터 선생님들은 고민이 있을 때 잘 들어주신다.’, ‘친절하시다.’ 등으로 지역아동센터 내 교사들에 대한 아동의 신뢰감과 만족도를 평가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설·환경 만족도의 경우, ‘내가 다니는 지역아동센터는 공부하는 곳이 깨끗하다.’, ‘화장실이 깨끗하다.’ 등과 같이 지역아동센터 공간에 대한 청결 및 쾌적함과 편안함을 평가하는 문항들이 포함된다. 또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나는 계속해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것이다.’, ‘나는 내 친구에게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도록 권할 것이다.’ 등으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감을 평가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 척도에서는 ‘매우 그렇다(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5점)’까지의 5점 Likert식 척도로 측정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해석하기 위해 모든 문항을 역코딩하였다. 즉, 점수가 높을수록 각 하위요인에 해당하는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Cronbach's α 는 지역아동센터 교사 만족도가 .89, 시설·환경 만족도가 .88, 전반적 만족도는 .89, 전체 문항은 .93이었다.

2) 긍정적 자아관

아동의 긍정적 자아관은 자아존중감(6문항)과 자아탄력성(10문항)으로 하위요인을 구성하였다. 먼저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척도(Rosenberg Self-Esteem Scale)를 고려대학교 부설 행동과학 연구소(2000)에서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

여 측정되었다. 구체적으로 ‘나는 나에게 만족한다.’,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고 느낀다.’ 등의 문항이 포함되며, 아동이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느끼는 정도를 측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자아탄력성은 Block과 Kreman(1996)의 자아탄력성 척도(Ego-Resiliency Scale)를 유성경, 심혜원(2002)이 수정·보완한 문항을 사용하여 측정되었다. 문항 내용을 살펴보면, ‘나는 갑자기 놀라는 일을 당해도 금방 괜찮아지고 그것을 잘 이겨낸다.’, ‘나는 매우 에너지(힘)가 넘치는 사람이다.’ 등으로, 아동의 상황에 따라 자아를 통제하거나 강화하는 등의 조절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원 척도에서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은 ‘매우 그렇다(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4점)’까지의 4점 Likert식 척도로 측정되었는데, 일부 문항은 응답값이 클수록 긍정적인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하기 위해 역코딩을 실시하였다. 이는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스스로를 가치 있고 긍정적인 존재로 여기고 있으며, 자아탄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긍정적 자아관 하위요인의 Cronbach's α 는 자아존중감이 .79, 자아탄력성이 .85, 전체 문항은 .77였다.

3) 일상적 스트레스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스트레스 문항이 활용되었고, 해당 문항을 학업 스트레스(1문항), 또래 스트레스(2문항), 외모 스트레스(2문항), 물질 스트레스(1문항)를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각 하위요인별로 문항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학업 스트레스는 ‘나는 숙제나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로, 학업과 관련된 스트레스 정도를 측정하며, 또래 스트레스는 ‘나는 친구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나는 친구에 대한 열등감(친구보다 못하다는 생각)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등으로 또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정도를 평가한다. 또한, 외모 스트레스는 ‘나는 몸무게가 많거나 적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나는 키가 너무 크거나 작아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등과 같이 아동 스스로 느끼는 외모에 대한 스트레스 정도를 측정한다. 마지막으로 물질 스트레스는 ‘나는 갖고 싶은 물건을 갖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문항이 포함되며, 아동이 원하는 물건을 소유하지 못하는 데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정도를 측정한다.

원 척도에서는 ‘매우 그렇다(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5점)’까지의 5점 Likert식 척도로 측정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기 위해 모든 문항을 역코딩하였다. 즉, 점수가 높을수록 각 하위요인에 해당하는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하며, 1개 문항인 학업 스트레스와 물질 스트레스를 제외한 Cronbach's α 는 또래 스트레스가 .82, 외모 스트레스가 .67, 전체 문항은 .81이었다.

4) 주관적 안녕감

주관적 안녕감은 행복감과 같은 정서적 측면과 삶에 대한 만족과 같은 인지적 측면으로 구성되므로(Diener et al., 1999),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은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연구진이 개발한 생활 만족도(1문항), 행복감(1문항)으로 하위요인을 구성하여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문항 내용을 보면, 생활 만족도는 ‘학생은 현재 자신의 생활 전반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와 행복감은 ‘현재 자신이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로 이루어져 있다. 생활 만족도는 ‘매우 만족한다(1점)’에서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4점)’까지 4점 Likert식 척도로 측정되었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하고자 역코딩을 실시하였다. 또한, 행복감 문항은 ‘전혀 행복하지 않다(1점)’에서 ‘매우 행복하다(5점)’까지 5점 Likert식 척도로 측정되었다. 이는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스스로 지각하는 자신의 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감과 행복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전체 문항의 Cronbach's α 는 .66이었다.

5) 통제변인

본 연구에서는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성별과 사회경제적 지위를 통제변인으로 사용하였다. 이는 성별(김현정, 최은영, 2014; 박영아, 2011; 신현균, 2014; 오미숙, 심우찬, 2014; 조윤미, 이숙, 2013)과 사회경제적 수준(김현정, 최은영, 2014; 성은모, 김균희, 2013; 오미숙, 심우찬, 2014; 이진숙, 김은주, 2013; 정혜숙, 김영희, 2014; 조은정, 2014)이 본 연구의 변인들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에 근거하였다.

사회경제적 수준은 주관적으로 평가로 이루어져있는데, 1점은 ‘매우 못산다(기초생활수급대상)’, 2점은 ‘차상위계층’, 3점은 ‘사각지대’에 포함되며, 4점은 ‘보통수준’부터 7점 ‘매우 잘산다.’까지 7점 Likert식 척도로 측정되었다.

3.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2.0과 AMOS 22.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 이전에 수집된 자료에서 결측치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연구변인들이 정규성을 충족하는지 정규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정규성 검정을 위해 왜도와 첨도를 살펴본 결과, 왜도는 -1.005~1.036, 첨도는 -1.021~.850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왜도의 절대값이 3미만이어야 하며 첨도의 절대값은 10미만이라는 정규성 기준을 충족하였다(Kline, 2015).

SPSS 22.0을 활용하여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조사도구의 신뢰도를 확인하고자 Cronbach's α 를, 측정변인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다음으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의 지역아동센터 만족도, 긍정적 자아관, 일상적 스트레스, 주관적 안녕감 간의 경로를 살펴보기 위해 AMOS 22.0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분석하였다. 연구모형의 타당성과 경로를 검증하기 위하여 2단계 접근법(Two-Step Approach)을 활용함으로써(Anderson & Gerbing, 1988), 1단계에서는 측정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실시하여 측정모형의 타당도를 확인하였고, 2단계에서는 구조모형의 전체 적합도와 경로의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연구모형의 계수 추정방식은 1, 2단계 모두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Estimate: MLE)을 사용하였다.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이론모형이 자료와 얼마나 잘 부합되는지를 절대적으로 평가하는 절대적합지수인 χ^2 ,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와 기초모형과 비교하여 이론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는 상대적합지수인 NFI(Normed Fit Index), TLI(Tuc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를 살펴보았다(홍세희, 2000). 마지막으로 구조방정식 모형의 측정변인 간 경로를 확인하고 효과를 분해하여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활용하여 검증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측정변인들 간 상관관계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지역아동센터 만족도와 긍정적 자아관, 일상적 스트레스, 주관적 안녕감 간의 상관관계와 각 변인의 기술통계 결과는 표 1과 같다. 먼저, 본 연구의 측정변인들이 정규 분포를 이루는지 살펴본 결과, 왜도는 $-1.005 \sim 1036$, 첨도는 $-1.021 \sim .850$ 로 나타나,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각각 3미만과 10미만일 때 정규성을 가진다는 기준(Kline, 2015)에 부합하였다. 다음으로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여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 측정변인들 간에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다. 먼저, 지역아동센터 만족도와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교사 만족도($r_s = .238 \sim .246, p < .001$), 시설·환경 만족도($r_s = .223 \sim .288, p < .001$), 전반적 만족도($r_s = .210 \sim .243, p < .001$)는 생활 만족도 및 주관적 안녕감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이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교사 및 시설·환경, 전반적인 만족감이 높을수록 아동이 스스로 지각하는 안녕감도 높은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아동의 자아존중감($r_s = .463 \sim .526, p < .001$)과 자아탄력성($r_s = .317 \sim .396, p < .001$)과 같은 긍정적 자아관은 주관적 안녕감의 하위변인인 생활 만족도 및 행복감과 정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즉, 자신을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아동은 주관적 안녕감도 높았다. 또한, 일상적 스트레스와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는 학업 스트레스($r = -.269, p < .001$), 또래 스트레스($r_s = -.350 \sim -.292, p < .001$), 외모 스트레스($r_s = -.235 \sim -.216, p < .001$), 물질 스트레스($r_s = -.328 \sim -.316, p < .001$)가 생활 만족도 및 행복감과 부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 일상적 스트레스가 높은 아동은 안녕감도 낮았다.

표 1

이동의 지역아동센터 만족도, 긍정적 자아관, 일상적 스트레스 및 주관적 안녕감 간의 상관관계
(N = 662)

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지역아동센터 만족도													
1. 교사 만족도	-												
2. 시설환경 만족도	.625***	-											
3. 전반적 만족도	.630***	.575***	-										
긍정적 자아관													
4. 자아존중감	.235***	.224***	.200***	-									
5. 자아탄력성	.178***	.178***	.110**	.532***	-								
일상적 스트레스													
6. 학업 스트레스	-.063	-.112**	-.087*	-.289***	-.166***	-							
7. 또래 스트레스	-.115**	-.137***	-.062	-.445***	-.249***	.490***	-						
8. 외모 스트레스	-.115**	-.165***	-.072	-.266***	-.126*	.356***	.465***	-					
9. 물질 스트레스	-.142**	-.183***	-.123**	-.316***	-.196***	.383***	.503***	.472***	-				
주관적 안녕감													
10. 생활 만족도	.238***	.288***	.210***	.526***	.396***	-.269***	-.350***	-.235***	-.328***	-			
11. 행복감	.246***	.223***	.243***	.463***	.317***	-.269***	-.292***	-.216***	-.316***	.494***	-		
통제변인													
12. 성별	.084*	.038	.087*	.008	-.020	-.002	.057	.173***	.006	-.021	.016	-	
13. 사회경제적 수준	.021	-.004	.040	.003	.059	-.041	-.024	-.012	-.036	-.008	.093*	-.036	-
M	.071	.286	.140	.187	.930	.727	.903	.088	.967	.332	.361	1.509	2.998
SD	.780	.721	.896	.562	.524	.252	.928	.072	.149	.588	.633	.500	1.217
왜도	-.660	-.990	-1.005	-.206	-.125	.166	.918	.784	1.036	-.616	-.331	-.036	-.295
첨도	.178	.850	.701	-.768	.162	-1.021	.270	-.219	.154	.121	-.144	-2.005	-1.089

* $p < .05$, ** $p < .01$, *** $p < .001$.

2. 측정모형 분석

연구모형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기에 앞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지역 아동센터 만족도와 긍정적 자아관, 일상적 스트레스, 주관적 안녕감을 설명하는 측정 변인들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하고자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절대적합지수인 χ^2 , RMSEA와 상대적합지수인 NFI, TLI, CFI로 살펴보았다. 홍세희(2000)는 χ^2 검증 시 '전집에서 모형은 변수 간의 관계를 완벽히 설명한다'는 영

지역아동센터 만족도가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긍정적 자아관, 일상적 스트레스의 매개적 역할을 중심으로

가설이 채택되어야 하나 χ^2 검증은 표본 크기에 민감하여 쉽게 기각되기 쉬우므로 다른 적합도 지수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 예로는 NFI, TLI, CFI의 경우 .90 이상, RMSEA의 경우 .05 미만이면 모형의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평가된다(홍세희, 2000). 본 측정모형을 분석한 결과, $\chi^2=70.769(df=38, p<.001)$, $\chi^2/df=1.862$, NFI=.970, TLI=.980, CFI=.986, RMSEA=.036으로 나타나 적합도 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표 2 참조).

또한, 본 측정모형에서는 모든 요인부하량(β)의 절대값이 .60 이상¹⁾이었고, C.R. (Critical Ratio) 값도 모두 $p<.001$ 수준에서 유의하였으므로, 모든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의 개념을 적절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그림 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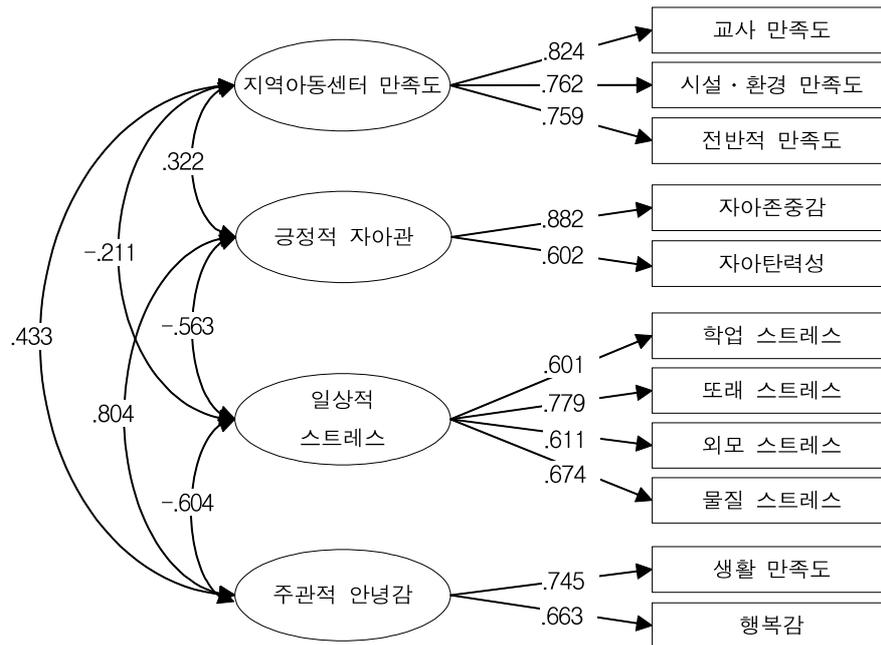
표 2

측정모형의 적합도

(N=662)

	χ^2	df	χ^2/df	NFI	TLI	CFI	RMSEA (LO90~HI90)
측정모형	70.769	38	1.862	.970	.980	.986	.036 (.023~.049)

1) 일반적으로 요인부하량(β)의 절대값이 .4 이상이면 해당 요인과의 상관이 높아 유의미하다고 해석한다(송태민, 김계수, 2012).



- * 주: 1) 제시된 수치는 표준화 추정치임.
- 2) 모든 경로는 .001 수준에서 유의함.
- 3) 측정모형의 간명성을 위해 오차항을 제외하여 표기함.

그림 2. 측정모형의 모수추정치

3. 구조모형 분석

아동의 지역아동센터 만족도 및 긍정적 자아관, 일상적 스트레스가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단, 본 연구의 변인들에서 성별과 사회적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는데, 성별의 경우 지역아동센터 만족도 중 교사만족도($t = -2.165, p < .05$)와 전반적 만족도($t = -2.249, p < .05$)에서, 그리고 일상적 스트레스의 경우에는 외모 스트레스($t = 4.526, p < .001$)에서 차이를 보였다. 사회적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이는 긍정적 자아관 중 자아탄력성 ($F(5, 656) = 2.276, p < .05$)과 주관적 안녕감에서 행복감($F(5, 656) = 2.337, p < .05$)

에서만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의하게 나타난 성별과 사회경제적 수준의 영향은 통제하여 구조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조모형을 분석한 결과, $\chi^2=82.687$ ($df=56$, $p<.05$), $\chi^2/df=1.477$, NFI=.966, TLI=.984, CFI=.989, RMSEA=.027로 나타나 본 구조모형은 적합도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동의 지역아동센터 만족도와 긍정적 자아관, 일상적 스트레스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는 다음 표 3, 그림 3과 같다. 먼저, 아동의 지역아동센터 만족도가 주관적 안녕감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지역아동센터 만족도는 주관적 안녕감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beta=.187$, $p<.001$). 즉, 아동이 지역아동센터의 교사와 시설·환경 및 전반적인 만족감이 높을수록 자신의 주관적 안녕감을 높게 지각하였다.

표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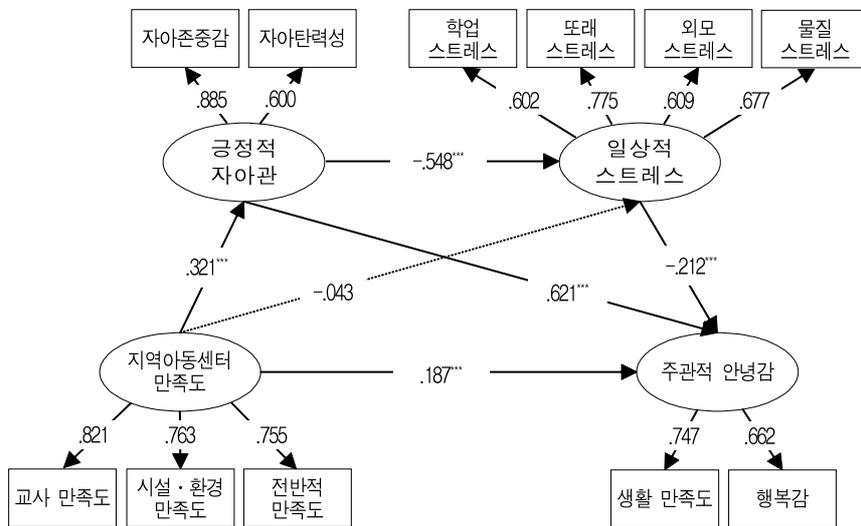
지역아동센터 만족도와 긍정적 자아관, 일상적 스트레스가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N=662)

경로	B	β	S.E.	C.R.
지역아동센터 만족도 → 주관적 안녕감	.129	.187	.031	4.133***
긍정적 자아관 → 주관적 안녕감	.549	.621	.069	7.990***
일상적 스트레스 → 주관적 안녕감	-.124	-.212	.036	-3.462***
지역아동센터 만족도 → 긍정적 자아관	.250	.321	.037	6.811***
지역아동센터 만족도 → 일상적 스트레스	-.051	-.043	.057	-.906
긍정적 자아관 → 일상적 스트레스	-.831	-.548	.100	-8.342***

*** $p<.001$.

다음으로, 아동의 지역아동센터 만족도가 긍정적 자아관과 일상적 스트레스를 통해 주관적 안녕감에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아동의 지역아동센터 만족도는 긍정적 자아관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beta=.321$, $p<.001$)을, 긍정적 자아관은 주관적 안녕감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beta=.621$, $p<.001$)을 미쳤다. 즉, 지역아동센터에 만족도가 높을수록 아동은 자아를 더욱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으며, 이는 높은 수준의 주관적 안녕감으로 이어졌다. 다음으로, 지역아동센터 만족도는 일상적 스트레스에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일상적 스트레스는 주관적 안녕감에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beta = -.212, p < .001$). 마지막으로, 지역아동센터 만족도는 긍정적 자아관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beta = .321, p < .001$)을, 긍정적 자아관은 일상적 스트레스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beta = -.548, p < .001$)을, 일상적 스트레스는 주관적 안녕감에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beta = -.212, p < .001$)을 미쳤다. 즉, 아동의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자아를 더욱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되고, 이는 일상적인 스트레스를 낮춤으로써 주관적 안녕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 1) 제시된 수치는 표준화 추정치임.
 2) 구조모형의 간명성을 위해 오차항은 제외하여 표기함.
 3) 실선은 유의미한 경로를, 점선은 유의미하지 않은 경로를 의미함.
 4) 잠재변인에서 측정변인으로의 요인부하량은 모두 $p < .001$ 수준에서 유의함.
 *** $p < .001$.

그림 3. 지역아동센터 만족도와 긍정적 자아관, 일상적 스트레스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표 4

아동의 지역아동센터 만족도와 긍정적 자아관, 일상적 스트레스가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대한 영향력 분석 (N = 662)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R ²
지역아동센터 만족도 → 주관적 안녕감	.187**	.246**	.433**	.705
긍정적 자아관 → 주관적 안녕감	.621**	.116**	.737**	
일상적 스트레스 → 주관적 안녕감	-.212**	-	-.212**	
지역아동센터 만족도 → 일상적 스트레스	-.043	-.177**	-.210*	.318
긍정적 자아관 → 일상적 스트레스	-.548**	-	-.548**	
지역아동센터 만족도 → 긍정적 자아관	.321*	-	.321*	.103

* 주: 1) 모든 수치는 표준화된 계수임.

2) R²는 다중상관치(Squared Multiple Correlation: SMC)를 의미함.

* p<.05, ** p<.01, *** p<.001.

잠재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를 상세하게 확인하고자,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지역아동센터 만족도가 긍정적 자아관과 일상적 스트레스를 통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와 총효과를 살펴보았다(표 4 참조).

먼저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세 변인, 지역아동센터 만족도와 긍정적 자아관, 일상적 스트레스의 영향력을 비교한 결과, 긍정적 자아관($\beta = .621, p < .01$)이 상대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그 다음으로 일상적 스트레스($\beta = -.212, p < .01$), 지역아동센터 만족도($\beta = .187, p < .01$) 순이었다. 또한, 일상적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긍정적 자아관($\beta = -.548, p < .01$)만이 유의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만족도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다음으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활용하여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한 결과, 지역아동센터 만족도가 긍정적 자아관과 일상적 스트레스를 통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은 유의하였다($\beta = .246, p < .01$).

마지막으로 외생변수가 내생변수의 변량을 설명하는 정도인 다중상관치(Squared Multiple Correlation: SMC)를 살펴본 결과, 지역아동센터 만족도와 긍정적 자아관, 일상적 스트레스가 주관적 안녕감을 설명하는 정도는 70.5%였다. 또한, 일상적 스

트레스에 대한 지역아동센터 만족도와 긍정적 자아관의 설명력은 31.8%, 긍정적 자아관에 대한 지역아동센터 만족도의 설명력은 10.3%로 확인되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지역아동센터 만족도가 긍정적 자아관 및 일상적 스트레스를 통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그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지역아동센터 만족도는 주관적 안녕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지역아동센터 만족도가 높을수록 주관적 안녕감도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아동센터 서비스가 도움이 되었다고 느낀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행복감(김현숙, 서운, 2017; 문지혜, 2018)과 심리사회적 적응(서원경, 2014)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선행연구 결과들을 지지한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은 저소득층에 포함되거나 맞벌이 가정 또는 한부모, 조손 가정 등에서 자라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이 때 가정에서 돌봄이나 보호, 교육 등의 기능이 아동에게 원활하게 작용하지 못할 경우, 지역아동센터 내 교사와의 관계나 시설·환경을 통해 이러한 기능들을 제공함으로써 부모나 가정의 역할이 보완될 수 있으며 이는 아동의 삶의 질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지역아동센터에서 교사와 신뢰롭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시설과 환경에서 쾌적하고 안전함을 느끼는 아동은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참여율을 높이고 동기와 욕구가 높아짐으로써(서원경, 2014) 아동의 삶의 질이나 행복감 또한 향상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이용 아동이 센터 교사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고, 센터 내부 및 주변 환경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질적 관리와 점검을 통해 아동에게 적합한 편안함과 쾌적함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하고자 노력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아동의 지역아동센터 만족도는 긍정적 자아관을 통해 주관적 안녕감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지역아동센터에 만족하는 아동은 긍정적으로 자아를 인식함으로써 주관적 안녕감이 높아졌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사회적 자원과 성격적 특성이

주관적 안녕감을 예측한다는 과정-참여 모형(Cantor & Sanderson, 1999)을 지지하였으며, 초등학생 및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지역아동센터 만족감과 긍정적인 자아와 관련된 변인, 안녕감 간의 관련성을 밝힌 선행연구 결과들과도 일치한다. 구체적으로,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이 지역아동센터 서비스가 도움이 되었다고 지각할수록 자아존중감 또는 자아탄력성이 높았고, 이를 통해 더 많은 행복감이나 삶의 만족도를 경험하는 것으로 연결된 연구결과(김현숙, 서윤, 2017; 문지혜, 2018)를 지지하였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도움 정도를 높게 평가한 중학생은 자아탄력성이 높아져 삶의 만족도를 더욱 높게 지각한 결과(한아름, 2017)와도 맥을 같이 한다. 이는 지역아동센터에 만족스러운 경험을 하는 아동이 자신을 좀 더 가치가 있고 긍정적인 존재로 여기며, 불안하거나 어려운 상황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바탕으로 하여 자신의 삶이 행복함을 지각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변인들 간 관계를 나누어 살펴보면, 지역아동센터의 서비스를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자아존중감(이훈, 신혜중, 2008)과 자아탄력성(정민희 외, 2016; 황진구, 김희진, 2013)이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결과와 아동의 자아존중감(배지아 외, 2016; 유설희 외, 2015; 정규석, 박선희, 2010)이나 자아탄력성(정현정, 문혁준, 2011)이 높을수록 주관적 안녕감이 높았다고 보고한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볼 때, 지역아동센터 만족도와 긍정적 자아관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행복감과 삶의 만족을 설명하는 주요한 변인이며, 아동의 개인 내적 요인인 긍정적 자아관은 지역아동센터 만족도와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매개적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긍정적 자아관은 지역아동센터 만족도에 비해 주관적 안녕감에 대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영향력을 보임으로써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이 자아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개인 내적 자원이 전반적인 삶의 만족과 행복감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인임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에게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개인 내적인 힘을 향상시킴으로써 긍정적인 자기상을 구축할 수 있는 자아성장 프로그램 등이 개발 및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지역아동센터 만족도와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일상적 스트레스의 매개적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역아동센터 만족도와 주관적 안녕감 간의 경로와 일상적 스트레스와 주관적 안녕감 간의 경로는 유의하였으나 지역아동센터 만족도와 일상적 스트레스 간의 경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

는 일상적 스트레스와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학령기 아동이 일상적 스트레스를 많이 지각할수록 주관적 안녕감이 낮아진 선행연구 결과(김현숙, 2016; 김효진, 진미경, 2016; 노지운, 신나나, 2014)를 지지하였지만, 지역아동센터와 일상적 스트레스 간의 관계에서 지역아동센터의 물리적 공간에 대해 환경심리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스트레스 상승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강지선, 류호창, 2013), 지역아동센터의 레크레이션 활동에 참여한 아동이 스트레스가 낮아졌다고(윤영미, 이완정, 2008) 보고된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이는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를 측정할 문항이 주로 학업이나 또래, 외모, 물질과 관련된 영역에서만 스트레스 정도를 측정하였으므로 지역아동센터의 교사와의 신뢰감이나 만족감과 시설 및 환경에 대한 청결 및 쾌적함, 지역아동센터 이용에 대한 전반적 만족감을 측정할 지역아동센터 만족도 결과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약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지역아동센터 만족도와 일상적 스트레스의 상관관계는 유의하였으나 구조모형 분석 시에는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고려해본다면, 일상적 스트레스에 비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이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지역아동센터 만족도와 일상적 스트레스 간 관계에서 매개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제3의 변인이 존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후속 연구에서 지역아동센터의 만족도와 일상적 스트레스 간 관계를 보다 정확하게 규명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지역아동센터 만족도는 긍정적 자아관과 일상적 스트레스를 통해 주관적 안녕감에 순차적으로 매개하였다. 즉, 지역아동센터에 만족할수록 아동은 자아를 더욱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으며, 이는 일상적 스트레스를 낮추게 하여 안녕감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아동센터에서 만족스러운 경험을 한 아동은 가정에서의 부족했던 돌봄 기능이 보완되었고(김민성, 박신희, 2015), 안정된 환경에서 맺는 대인관계를 통해 아동은 자신을 존중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잘 이겨낼 수 있는 내적인 힘이 길러지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의 스트레스를 낮게 지각할 수 있으며,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만족하고 행복감을 높이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비록 네 변인의 경로를 모두 살펴본 연구는 없었지만, 지역아동센터 만족도는 자아와 관련된 변인들과 관련성이 있고(이훈, 신혜중, 2008; 정민희 외, 2016; 황진구, 김희진, 2013), 자아개념이나 자아탄력성 등의 긍정적인 자아관은 일상적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며(김요셉 외, 2011; 박영아, 2013; 임상희, 2005), 일상적 스트레스는

주관적 행복감을 예측하는 것으로(김현숙, 2016; 김효진, 진미경, 2016; 노지운, 신나나, 2014) 나타난 결과들을 지지하였다. 특히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 긍정적 자아관의 영향력이 매우 크게 나타나 긍정적 자아관의 중요성이 다시금 강조된다. 따라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아동의 개인 내적인 힘을 길러주고, 자신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스스로의 가치를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와 더불어 지역아동센터 내 교사와 아동 간의 신뢰감을 구축하고, 시설·환경 등의 쾌적함과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 등을 실시해야 하며, 부모와 지역아동센터 내 교사가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이 일상생활에서 어떠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지, 스트레스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세심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결과에서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들을 통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이 어떠한 과정으로 형성되는지 살펴볼 수 있었다. Diener(1984)는 행복에 관한 확산이론(spillover theory)을 통해 상향적 접근(bottom-up)과 하향적 접근(top-down)으로 행복감의 확산과정을 설명하면서 상향 접근과 하향 접근의 상호작용을 강조하였다. 먼저, 상향적 접근은 개별적인 생활영역 안에서 만족이 축적되어 궁극적으로 삶 전반에 대하여 높은 수준의 만족이나 행복으로 이르게 된다고 보고 있으며, 하향적 접근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질이나 성격, 특징에 따라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일상생활 중에서도 지역아동센터에서의 긍정적 경험들이 아동의 전반적인 삶의 정서에 영향을 보인 상향적 접근을 보여주었고, 이와 더불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함에 따른 만족감으로 인해 높아진 긍정적 자아관과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는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행복의 하향적 과정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행복감 증진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에서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 및 자아관 형성과 스트레스 관리 등 개인의 심리 정서적인 적응의 중요성을 강조해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이를 바탕으로 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는 동일한 시점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센터 만족도와 긍정적 자아관, 일상적 스트레스, 주관적 안녕감을 측정하였으므로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종단 연구를 수행하여

이러한 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보다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을 둘러싼 부모나 형제·자매 등의 가족 특성이나 또래관계와 학교, 지역사회 등의 환경적 요인을 다양하게 고려하지 못하였다. 특히, 학교는 학령기 아동이 일상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므로 학교 유대감이나 성적, 친구와의 애착과 같은 학교 특성들(임지선, 신원우, 2017)을 통제하여 살펴본다면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이해를 더 높일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삶의 질이나 행복, 적응 등에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환경적인 요인들을 함께 다루어 분석하는 것도 요구된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연구대상을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 중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전환하는 시점에 있는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지역아동센터 만족도와 긍정적 자아관, 일상적 스트레스를 동시에 고려하고, 그 의미를 파악함으로써 이 시기 아동의 행복감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결과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아동의 개인 내적인 힘뿐만 아니라 아동과 지역아동센터 교사와의 관계 및 시설 내·외부 환경의 개선, 아동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함께 고려하는 것에 방점을 둔 개입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강지선, 류호창 (2012). 지역아동센터의 공간적 기능과 환경심리 요소의 연관성: 서울 강북지역 초등학교 대상의 아동시설 중심으로. **한국디자인포럼**, 37(7), 377-388. doi:10.21326/ksdt.2012..37.033
- 고려대학교 부설 행동과학연구소 편 (2000). **심리척도핸드북 I**. 서울: 학지사.
- 고영남 (2016). 청소년의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의 영향. **교육문제연구**, 29(1), 193-217.
- 곽수란 (2007). 초·중학생의 생활만족도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17(1), 1-21. doi:10.32465/ksocio.2007.17.1.001
- 구인회, 박현선, 정익중, 김광혁 (2009). 빈곤과 아동발달의 관계에 대한 종단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61(1), 57-79. doi:10.20970/kasw.2009.61.1.003003
- 김민성, 박신희 (2015). 지역아동센터 아동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가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지역아동센터 교사지지의 상대적 영향력과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아시아교육연구**, 16(2), 55-82. doi:10.15753/aje.2015.16.2.003
- 김연화 (2010). 아동·청소년의 일상 스트레스 및 자아탄력성과 행복감과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7(12), 287-307.
- 김요셉, 김성천, 유서구 (2011). 청소년기 스트레스의 영향요인: 긍정적 자아개념과 자기신뢰감의 영향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8(3), 103-126.
- 김현숙 (2016). 한부모 가정의 사회자본이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부모 성별, 한부모 기간, 교급에 따른 차이. **학교사회복지**, 35, 275-302.
- 김현숙, 서윤 (2017). 지역아동센터 서비스의 도움 정도가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및 한부모와 양부모 자녀의 다집단 분석. **청소년복지연구**, 19(4), 1-24. doi:10.19034/KAYW.2017.19.4.01
- 김현정, 최은영 (2014).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부모자녀관계, 사회적 자본, 자아존중감. **보건사회연구**, 34(1), 239-267. doi:10.15709/hswr.2014.34.1.239
- 김효진, 진미경 (2016). 아동이 지각하는 일상적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21(3), 443-446. doi:10.13049/kfwa.2016.21.3.4

- 노지운, 신나나 (2014).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이 지각하는 일상적 스트레스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낙관적 사고의 중재효과. **아동학회지**, 35(3), 137-156. doi:10.5723/KJCS.2014.35.3.137
- 문지혜 (2018). **지역아동센터아동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자아인식의 매개 효과와 사회적 위축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성연 (2006). **아동발달**. 경기: 교문사.
- 박영아 (2011). 스트레스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초등학생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2(3), 107-120.
- 박영아 (2013). 아동의 자아탄력성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정서경험의 매개효과. **아동학회지**, 34(3), 179-190. doi:10.5723/KJCS.2013.34.3.179
- 박재숙 (2010). 학교 청소년의 인권보장, 자아존중감, 주관적 행복감 간의 관계. **청소년 복지연구**, 12(1), 35-59.
- 배지아, 도현심, 박보경, 김민정 (2016). 모-자녀 애착 및 공유시간과 자아존중감이 학령 후기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7(2), 111-125.
- 백혜영, 강현아 (2016). 빈곤이 아동의 사회적 자본을 통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 아동복지학**, 54, 113-144.
- 보건복지부 (2020). **2020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세종: 보건복지부.
- 서월경 (2014).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프로그램 만족도 및 또래관계와 심리사회적 적응. **부모교육연구**, 11(1), 5-34.
- 성은모, 김균희 (2013). 청소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특성과 환경특성 간의 관계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24(4), 177-202.
- 신현균 (2014). 초등학교 고학년생의 스트레스와 우울증상 간 관계: 역기능적 태도와 자존감의 매개효과 및 성차.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3(3), 591-615. doi:10.15842/kjcp.2014.33.3.008008
- 염유식, 김경미 (2017). **한국 어린이 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연구 조사결과보고서**. 서울: 한국방정환재단,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 오미숙, 심우찬 (2014). 학업 스트레스가 아동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29, 237-261.

- 유설희, 박보경, 도현심 (2015). 학령 후기 아동의 또래관계 및 자아존중감이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아동학회지**, 36(2), 55-74. doi:10.5723/KJCS.2015.36.2.55
- 유정원, 김형모 (2012). 빈곤이 아동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생태체계 변인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아동과 권리**, 16(2), 231-257.
- 유성경, 심혜원 (2002). 적응 유연한 청소년들의 심리적 보호요소 탐색. **교육심리연구**, 16(4), 189-206.
- 윤영미, 이완정 (2008). 지역아동센터 레크레이션 활동 참여에 따른 아동의 일상적 정서경험과 우울 및 스트레스. **한국생활과학회지**, 17(5), 903-914.
- 이진숙, 김은주 (2013). 아동의 기질, 부모자녀 의사소통, 또래관계가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22(5), 433-445.
- 이훈, 신혜중 (2008). 지역아동센터가 저소득층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14(1), 167-193.
- 임상희 (2005). **아동의 자아탄력성이 스트레스와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임아영, 박미화 (2017). 초등학생의 자아탄력성과 행복감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매개효과. **발달지원연구**, 6(2), 137-154. doi:10.22839/adp.2017.6.2.137
- 임지선, 신원우 (2017).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학교환경 요인과 주관적 행복감간의 관계.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7(1), 853-861. doi:10.35873/ajmahs.2017.7.1.076
- 전혜진, 유미숙 (2015). 청소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자아존중감, 진로성숙도 및 미시체계 변인의 경로분석. **청소년학연구**, 22(6), 75-104.
- 정규석, 박선희 (2010).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관한 다체계 모델 검증. **사회과학연구**, 26(1), 433-452.
- 정민희, 홍성원, 유서구 (2016). 지역아동센터 서비스의 도움 정도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경로 모형: 직간접 효과의 확인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 복지학**, 59, 99-127.
- 정익중, 김혜란, 홍순혜, 박은미, 허남순, 오정수 (2015).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이 빈곤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57(3), 105-131.
- 정현정, 문혁준 (2011). 아동의 행복감에 대한 아동이 지각한 부모-자녀관계의 사회적

- 자본, 자아탄력성, 사회 인구학적 변인의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7(3), 21-42.
- 정혜숙, 김영희 (2014). 아동이 지각한 행복 결정요인: 심리특성·사회활동·관계적 요인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1(7), 89-118.
- 조소연 (2014). 부모의 지도감독 및 방임과 고등학생의 주관적 행복의 관계에서 자아 존중감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1(6), 59-84.
- 조윤미, 이숙 (2013). 아동의 성과 기질, 모의 양육태도 및 사회적 지지가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4(2), 169-185.
- 조은정 (2014). 아동·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청소년문화포럼**, 37, 103-126. doi:10.17854/ffyc.2014.01.37.103
- 채현이, 최미영 (2018). 학령기 아동이 지각하는 일상적 스트레스와 유머감각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24(1), 18-26. doi:10.4094/chnr.2018.24.1.18
- 최윤정 (2000). **사회복지관의 방과 후 아동지도에 대한 부모의 만족도 연구**. 경성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한아름 (2017). 부모의 방임과 학대, 지역아동센터 서비스의 도움정도가 저소득 가정 청소년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4(7), 29-54. doi:10.21509/KJYS.2017.06.24.7.29
- 홍세희 (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황순택, 구형모, 김지혜 (2001). 자아탄력집단의 성격특질.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0(3), 569-581.
- 황진구, 김희진 (2013).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만족도 변화에 관한 연구**(연구보고 13-R21).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Anderson, J. C., & Gerbing, D. W.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3), 411-423. doi:10.1037/0033-2909.103.3.411
- Berk, L. E. (2009). **생애발달 I: 영유아기에서 아동기까지** (4판) (이옥경, 박영신, 이현진, 김혜리, 정윤경, 김민희 공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원저 2007 출판)

- Block, J. H., & Block, H. (1980). The role of ego-control and ego-resiliency in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In W. A. Collins (Ed.), *Development of cognition, affect, and social relations: The Minnesota Symposia on Child Psychology* (pp. 39-101). Hillsdale, NJ: Erlbaum.
- Block, J., & Kremen, A. M. (1996).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2), 349-361. doi:10.1037/0022-3514.70.2.349
- Cheng, H., & Furnham, A. (2004). Perceived parental rearing style, self-esteem and self-criticism as predictors of happines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5*, 1-21. doi:10.1023/b:johs.0000021704.35267.05
-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 542-575. doi:10.1037/0033-2909.95.3.542
- Diener, E. (1996). Traits can be powerful, but are not enough: Lessons from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0*, 389-399. doi:10.1006/jrpe.1996.0027
- Diener, E., & Diener, M. (1995). Cross-cultural correlates of life satisfaction and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4), 653-663. doi:10.1037/0022-3514.68.4.653
- Diener, E., Suh, E. M., Lucas, R. E., & Smith, H. L. (1999). Subjective well-being: Three decades of progress. *Psychological Bulletin, 125*(2), 276-302. doi:10.1037/0033-2909.125.2.276
- Huebner, E. S. (1991). Correlates of life satisfaction in children. *School Psychology Quarterly, 6*, 103-111. doi:10.1037/h0088805
- Kline, R. B. (201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4th ed.). New York: Guilford Press.
- McCullough, G., Huebner, E. S., & Laughlin, J. E. (2000). Life events, self-concept, and adolescents' positive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y in the Schools, 37*(3), 281-290. doi:10.1002/(sici)1520-6807(200005)37:3<281::aid-pits8>3.0.co;2-2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osenberg, M., Schooler, C., Schoenbach, C., & Rosenberg, F. (1995). Global self-esteem and specific self-esteem: Different concepts, different outcom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0*, 141-156. doi:10.2307/2096350
- Terry, T., & Huebner, E. S. (1995).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concept and life satisfaction in children. *Social Indicators Research*, *35*(1), 39-52. doi: 10.1007/bf01079237
- Vacek, K. R., Coyle, L. D., & Vera, E. M. (2010). Stress, self-esteem, hope, optimism, and well-being in urban, ethnic minority adolescents. *Journal of Multicultural Counseling and Development*, *38*(2), 99-111. doi:10.1002/j.2161-1912.2010.tb00118.x

ABSTRACT

The effect of community child center satisfaction on children's subjective well-being: The mediating role of positive self and daily hassles

Yoo, Seolheui* · Noh, Jeeun**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community child center satisfaction on children's subjective well-being and the mediating effects of positive self and daily hassles. To achieve this, a total of 662 6th grade elementary school children (325 boys and 337 girls), using survey on Community Child Center Panel, were utilized and all variables were assessed by means of self reporting by the children involved.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making use of AMOS 22.0. As a result, the level of child satisfaction with community child centers affected their subjective well-being directly; meaning higher levels of satisfaction with community child centers led to higher subjective well-being. Additionally, the level of child satisfaction with community child centers affected their subjective well-being indirectly through their positive self and daily hassles. In other words, the higher the satisfaction level with community child centers, the more positive self images were observed, and the lower the stress levels, which in turn led to higher overall levels of happiness and satisfaction in their lives. These findings have implications for research and practice by emphasizing the crucial influences of community child center satisfaction and positive self image, and daily hassles on children's subjective well-being. Moreover,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used as a basic data for developing programs that can improve children's subjective well-being in community child centers.

Key Words: community child center, positive self, daily hassle, subjective well-being

투고일: 2019. 12. 9, 심사일: 2020. 3. 6, 심사완료일: 2020. 3. 20

*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Ewha Womans University